“정부·보훈처가 국론분열…박승춘 해임하라”

‘임 행진곡’ 제창 거부 반발 확산

“노래 하나 제대로 못 부르나”

오월단체·사회단체 등 분노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이어

5·18행사위원장도 불참 선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아서는 박근혜 정부와 박승춘 보훈처장을 규탄한다”,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 제대로 못 부르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

5·18광주민주화운동 36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전남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아서는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을 알리는 보훈처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정부 기념식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했다. 또 5·18 민간 행사를 총괄하는 정구선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위원장도 기념식에 불참한다고 선언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18유족은 최근 3년간 별도의 기념식을 꾸려오다가 더이상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부 기념식에 참석키로 했지만, 5·18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아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도 부족해 보훈처가 극소수 극우 인사가 유포한 ‘친북 노래’라는 주장을 그대로 빌려 ‘붉은 색칠’을 했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5월과 이 땅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에 색칠을 함으로써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는 물론 5월 희생자들과 가족, 지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전국에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에 나선 방문객들도 5월과 국내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을 ‘편협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묘지를 참배한 방문객 A씨는 “노래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한 나라, 가해자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는 나라”라고 썼다. 또 다른 방문객은 “(이 상황에서) 무슨 오월 정신을 계승하느냐,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야제가 열린 광주 금남로에서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나섰던 시민, 시내를 돌며 마지막 가두 방송을 했던 시민 등이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현 정부를 함께 비판했다.

전야제에 모인 시민 대다수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막아서는 정부와 보훈처가 진정한 국론 분열자”라며 금남로가 떠나갈 듯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5·18을 깎아내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정하는 현 정부에 맞서 시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이상 국론 분열을 내세워 5월 광주를 폄훼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5월 단체들은 시민, 국민과 한 뜻으로 정부 기념식에서 떳떳하게 큰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열속에 부른 ‘임 행진곡’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상호 “보수 영웅 되고 싶은 보훈처장의 항명”

박지원 “대통령 결단해야 국민통합 가져온다”

더민주·국민의당 ‘임 행진곡’ 제창 촉구 공세 고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국가보훈처가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불허한 데 대해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레임덕까진 모르겠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안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저는 박 처장의 항명이라고 본다”며 “(박 처장이)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보훈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독자적 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데 대해 “보훈단체에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기념식에 오시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뒤 “추모노래는 추모대상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라며 “독립군 후손들한테 독립군가를 부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5·18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추모곡을 못 부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TBS라디오에 나와 “보훈처 결정은 당정청에서도 혼선을 가진 결정이 아니었나 우려스럽다”며 “20대 국회는 19대와 달라서 야당이 공조하고 결심만 하면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보훈처 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박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양식 있는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극소수의 수구 냉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공동대표는 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작년에 5·18 기념식에 참석해 이 노래를 같이 부르셨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보훈처에 이 (노래를) 제창하자고 요청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느냐”라고 반박한 뒤 “(기념식이) 내일이지만,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결단을 새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광주로 내려가고 있다”고 전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대통령 결단은 국민통합을 가져온다”고 적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국이 급랭한 것과 관련,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와 청와대 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구·광주 이번엔 ‘5·18 달빛동맹’

권영진 시장·김관용 경북지사 등 방문단 50여명 기념식 참석

영남과 호남의 거점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5·18 달빛동맹’에 나섰다.

달빛동맹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유대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두 도시의 머리글자를 합쳐 만든 공동 발전사업이다.

이번엔 대구가 동맹 지자체인 광주를 찾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먼저 간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다.

방문단 규모는 50여명.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대구시의회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도 동행한다. 지난 2월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광주쪽에서 방문단이 대구를 찾은데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권 시장 일행은 기념식 참석 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문화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1월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힘을 보태기로 한 5·18 기록관을 찾아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18일 기념식에 참석한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들은 기념식과 타종식에 참석한 후 오후 2시부터 증심사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제3차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5대 분야 23개 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두 도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위원회는 두 도시에서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와 대구 예총 류형우 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17일 “내륙철도건설과 3D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빛동맹이 강화되면서 민·관 자율교류도 34%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